

경영에서의 정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영

이건창

경영의 핵심개념과 정의

경영에서의 정의(justice, 正義)를 어떻게 정의(define, 定義)하느냐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는 전략에 많은 변수가 생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경영의 핵심개념을 확인해 보자. 우선, 경영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기업내부에서 일하는 내부고객인 종업원, 시장에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외부고객, 정부당국자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그리고 은행관계자 등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때문에 경영에서의 정의 역시 이러한 다수 이해관계자를 공평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공평성 차원에서 본 정의이다.

또한 경영에서의 정의는 건강한 이윤창출이 필수적이다. 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분명 이해관계자들에게 나쁜 소식이다. 경영은 정당한 이익창출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사회적 책임관점에서의 정의도 존재한다. 아무리 회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갖는 책임을 다한다는 개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은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정의가 있다. 이는 기업이 법에서 정한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정의가 구현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정해진 급여나 대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는 것, 정해진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등이 법률적 정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갖는 경영에서의 정의를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자.

공평성 차원의 정의

기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즉, 특정 이해관계자를 우선하여 다른 이해관계자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내부거래를 무거운 벌로 다스리는 이유도 공평성을 해쳤기 때문이다. 기업 내에서의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알아낸 정보로 사전에 거래를 하는 것은 그 기업에 투자한 시장의 일반투자자들을 우롱하는 불공평한 행위이다.

건강한 기업은 경영의 정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기업은 가계, 정부와 함께 국가의 경제주체로,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업이 건강해야 그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적성을 무시한 일률적 평등주의는 한정된 부를 왜곡되게 배분한다. 왜곡된 공평성은 결국 개인과 사회, 국가의 파멸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기업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와 국가는 힘을 잃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다.

가 있다.

첫째, 건강한 기업은 건강한 직업을 창출한다. 복지와 급여, 그리고 근무환경이 양호한 건강한 직업이 많아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튼튼한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이 가능하다.

둘째, 건강한 기업은 건강한 공평성을 만들어 낸다. 공평성에도 건강치 못한 공평함이 있다. 이미 역사적 화석으로 변해가는 공산주의에서 꿈꾸는 공평성은 건강치 못한 공평함이다. 경영이나 그에 따른 이윤 확보 자체를 죄악시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하고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러다보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적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평등주의로 한정된 부의 자원을 왜곡되게 배분한다. 이러한 왜곡된 공평성은 결국 개인과 사회, 국가의 파멸로 이어진다. 자연스러운 붕괴과정이다.

셋째, 기업이 건강하여야만 사회와 나라도 건강해진다는 점이다. 건강한 비즈니스 활동으로 창출된 이윤의 일부는 해당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배당되고, 국가에 세금으로도 납부된다. 그런 세금은 다시 많은 국민들에게 재배분된다.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다양한 복지개발정책 등을 통해서 말이다. 달리 말하면, 기업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와 국가는 힘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볼 수 있다.

건강한 이윤

건강한 이윤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빈(淸貧)의 단어부터 뜻을 새겨보자. 청빈은 '가난이 유익이다'라는 말

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경영에서는 청빈을 단순히 가난을 지향하는 말로 해석 될 수 없다. 이윤을 많이 내어 건강한 복지, 세금, 공평을 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윤 없이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구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빈은 '건강한 이윤추구'로 재해석 되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종업원들의 복지와 건강을 챙겨주며,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고, 협력 업체들에게 결제 할 금액을 제때에 챙겨주고 나서 남은 것이 건강한 이윤이다. 건강한 이윤창출은 경영에서의 정의가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는 큰 힘의 원천이다.

관련 사례를 보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다. 삼성전자의 이윤은 2010년도만 하더라도 17조원에 달하고, 그 이윤의 90% 이상이 해외시장에서 창출된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전 세계 종업원의 수는 이미 10만 명에 달한다. 한 사람당 부양하는 가족 수를 두세 명만 잡아도 20-30만 명의 엄청난 고용연관효과가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진출한 곳에서는 이윤이 창출되고 그로 말미암아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윤택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건강한 이윤이 갖는 힘이다.

경쟁으로 본 정의

기독교인들은 경쟁을 어떻게 볼까? 개인적으로도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신앙생활을 맨 처음 시작할 때 갖게 되는 오해 중 하나는, 기독교에서는 경쟁을 터부시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연 그런가?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경쟁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인과 아벨과의 경쟁은 불행히도 살인으로 막을 내렸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벌인 경쟁은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서사시처럼 막을 내린다. 한명은 이방 민족의 조상으로, 또 한명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말이다. 그리고 야곱의 열 두 아들이 벌인 경쟁은, 하나님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극적인 구원 계획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끝을 맺는다. 하나님은 형들의 배신에 의해 애굽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 전무후무한 기근으로 죽음에 직면한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센 지방으로 피난시키면서 거대한 구원의 수레바퀴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방민족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치열한 영적경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경쟁에서 패배의 조짐을 보이자 다시금 모세를 등장시켰다. 그로 하여금 애굽의 파라오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하여, 드

디어 가나안 땅으로의 출애굽을 하게 된다. 출애굽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 역시 이방 민족과 종교, 풍속 등에 대한 철저한 경쟁이 있었다. 영적전쟁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지는 것은 곧 영적 패배를 의미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전쟁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만나사건이다. 만나는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서 먹어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자기절제에 실패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만나를 지나치게 거두어 이를 보관하려 하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받는다.

성경은 출애굽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민족간 치열한 경쟁을 보여준다. 때로는 기적적인 승리를, 때로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회개로 끝맺음을 하면서 말이다.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등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동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경쟁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민중들에게 보여주었다. 예

경쟁은 분명 고통스럽다. 그러나 고통스런 경쟁 없이는 개인과 사회, 국가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서도 경쟁원칙은 있는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수 그리스도 역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어쩔 수 없이 한판 영적경쟁을 하셨고, 그 결과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

경쟁은 분명 고통스럽다. 그러나 고통스런 경쟁 없이는 개인과 사회, 국가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서도 경쟁원칙은 있는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맺으면서

경영 현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건강한 이윤창출과 공평한 배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 속에 고통스런 경쟁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흔히 고통 없이 좋은 결과를 원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코 하나님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피땀을 흘려서 얻은 정의야말로 진정한 정의이기 때문이다. 힘이 있는 정의는 그렇게 쟁취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영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건강한 이윤창출과 공평한 배분은 경영에서의 정의를 이루는 밑바탕이다.
- 이윤창출에는 고통스런 경쟁이 수반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이에 당당히 맞서 나 스스로가 경쟁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



- 현재 다른 기업보다 경쟁우위에 서지 못하면 몇 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피나는 노력으로 얻은 경쟁우위는 진정한 이윤창출의 원동력이 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영에서의 정의'를 이루는 밑거름이다.



이건창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부학부장.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카이스트에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제3회 매경비트학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